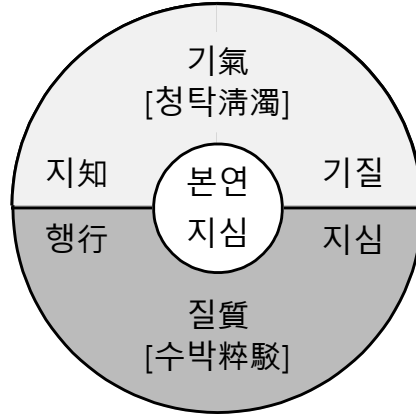


고전콘서트

이율곡의 성학집요 聖學輯要

윤홍식



1.

제왕의 학문은 기질氣質을 변화하는 것보다 절실한 것이 없고, 제왕의 정치는 정성스러움을 미루어서 어진 이를 등용하는 것보다 먼저해야 할 것이 없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경영할 수 있을 때, 천하를 경영할 수 있다!)

帝王之學 莫切於變化氣質 帝王之治 莫先於推誠用賢

2.

신이 살피건대, 놓친 마음을 다시 모으는 것이 학문의 토대가 됩니다. 생각건대 옛 사람은 스스로 밥을 먹고 말을 할 수 있을 때 부터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에 어그러짐이 없고, 생각에 지나친 것이 없게 하여, 그 '양심'을 배양하고 '덕성' 존중하는 것이, 어느 때 어느 일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격물치지格物致知' 공부는 여기에 의거해야만 머물 곳이 있게 됩니다.

臣按 收放心爲學問之基址 蓋古人自能食能言 便有教 動罔或悖 思罔或逾 其所以養其良心 尊其德性者 無時無事而不然 故格物致知工夫 據此有所湊泊

이제 젊어서 이런 공부를 하지 않고, 지름길로 원리를 탐구하고 몸을 닦고자 하니, 마음이 혼란하고 요동하며 행동거지가 지나치거나 어긋나서, 그 공부가 있는 듯도 하고 없는 듯도 하여 절대로 성공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현들은 바로 ‘정좌靜坐’를 가르치고, 또 ‘구용九容’으로 몸을 챙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학자가 최초로 힘을 써야 할 곳입니다. 그러나 ‘정좌’하는 것은 역시 일이 없을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만약 일에 대응하고 사물에 접할 때는 ‘정좌’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하물며 임금의 한 몸에는 만 가지 일이 모두 모여 있으니, 만약 일 없을 때를 기다려 정좌한 뒤에 배운다면, 아마 그럴 때는 없을 것입니다.

今者 自少無此工夫 徑欲從事於窮理修身 則方寸昏擾 舉止踰違 其所用功 若存若亡 決無有成之理 故先正教人靜坐 且以九容持身 此是學者最初用力處也 然所謂靜坐者 亦指無事時也 若應事接物 不可膠於靜坐也 況人主一身 萬機叢集 若待無事靜坐 然後爲學 則恐無其時

다만 움직이고 고요하고를 묻지 말고, 마음을 잘 챙겨서 해이해지지 말아야 하니, 허노재許魯齋가 말한 바와 같이, 비록 천만 사람 가운데 있더라도 항상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일이 없을 때에는 텅 비고 고요히 하여 그 본체를 배양할 수 있으며, 일이 있을 때에는 밝게 비추어 살피서 그 작용을 바르게 할 수 있으니, ‘성인의 학문’(聖學)의 근본이 여기에서 확립될 것입니다. 성현의 교훈은 밝아서 속이지 아니하는 것이오니, 원컨대 유념하십시오.

但不問動靜 此心未忘 持守不解 如許魯齋所謂雖在千萬人中 常知有己 則無事而虛寂 可養其體 有事而照察 可正其用 聖學根本 於斯立矣 聖賢之訓 昭然不誣 願留睿念焉

* 구용九容(9가지 모양, 『소학小學』, 『격몽요결擊蒙要訣』)

- ① 발의 모양은 반드시 무거워야 하고 (足容重)
- ② 손의 모양은 반드시 공손해야 하며, (手容恭)
- ③ 눈의 모양은 반드시 단정해야 하고 (目容端)
- ④ 입의 모양은 반드시 그쳐있어야 하며, (口容止)
- ⑤ 소리의 모양은 반드시 고요해야 하고 (聲容靜)
- ⑥ 머리의 모양은 반드시 곧아야 하며, (頭容直)
- ⑦ 기운의 모양은 반드시 엄숙해야 하고 (氣容肅)
- ⑧ 서있는 모양은 반드시 덕스러워야 하며, (立容德)
- ⑨ 안색의 모양은 반드시 장엄해야 한다. (色容莊)

3.

신이 살피건대, 임금의 진실로 어진 이를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소인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야 임금과 신하가 늘 틈이 없어서 ‘다스림의 길’(治道)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악을 미워함이 엄격하지 않아서 소인으로 하여금 남을 헐뜯는 혀를 놀리게 한다면, 군자가 어떻게 조정에 편안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臣按 人君誠欲用賢 則必遠小人 然後君臣可以終始無間 以成治道矣 若惡惡不嚴 使小人得搖讒舌 則君子豈安於立朝乎

대저 남을 헐뜯는 자는 염탐을 잘하고, 백 가지로 그 모양을 바꿉니다. 혹은 겉으로는 도우면서 속으로는 짓누르기도 하고, 혹은 처음에는 칭찬했다가 나중에는 비난하기도 합니다. 거짓된 일을

꾸면서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교묘하게 그럴싸한 구실을 세우기도 합니다. 독실하게 행하는 이를 ‘거짓 선’(僞善)이라고 지적하기도 하며, 도리를 지키는 이를 ‘거짓 학문’(僞學)이라고 합니다. 은거하여 뜻을 고상하게 하는 이를 일러 세상을 업신여긴다고 하며, 나아가기를 어렵게 여기고 물러나기를 쉽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 임금에게 잘 보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夫讒人者 善於伺候 變態百端 或陽助而陰抑 或始譽而終毀 粉飾羅織 巧立名目 指篤行者爲僞善 指守道者爲僞學 隱居尚志者 謂之傲世 難進易退者 謂之要君

조정에서 올바른 말을 하는 이를 ‘정직함’을 판다고 하며,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는 이를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어진 이를 천거하고 협력하는 이를 ‘붕당朋黨’이라고 하며, 목은 폐단을 바로잡고 고치는 이를 정치를 어지럽게 한다고 합니다. 선량한 이를 모함하는 술수는 다 열거할 수가 없습니다. 임금께서 만약 소인들을 깊이 미워하여 통렬하게 끊지 않으시고 함께 수용하고 함께 기르는 계책을 쓰신다면, 점점 그 술수에 빠져 마침내 온갖 간신배들은 모여들 것이며, 군자들을 멀리 간신이 모여들고 군자는 멀리 숨게 될 것입니다. 아, 참으로 두렵지 않겠습니까?

廷爭謗諤者 謂之賣直 盡心國事者 謂之專擅 舉賢協力者 以爲朋黨 矯革宿弊者 以爲亂政 誣陷良善之術 不可枚舉 人君若不深惡而痛絕之 乃爲俱收竝蓄之計 則駸駸然漸入于術中 終至於羣陰彙進 君子遠屏矣 嗚呼 可不懼哉

4.

신이 살피건대, 천하는 지극히 광대하고 일의 기미는 지극히 번잡하니, 임금이 작은 몸으로 고요하고 간략함에 머물면서 대응함에

여유로울 수 있는 것은, 다만 천하의 지혜를 모아서 천하의 일을 결단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사람은 각각 지혜가 있으니, 어리석은 이라도 또한 한 가지 얻음은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지혜를 두루 취하여 하나의 지혜로 합하고, 자신에게 있는 ‘양심의 잣대’로 정밀히 밝혀(4단의 분석) ‘중심’(치우치는 않는 자명한 답안)을 얻는다면, 천하가 비록 광대하더라도 손바닥 위에 놓고 굴러보는 것과 같을 것이며, 일의 기미가 번잡하다고 하더라도 높은 곳에서 물동의 물을 쏟는 것처럼 아주 쉽게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臣按 天下至廣也 事機至煩也 人主以眇然之身 處靜居簡 而應之有裕者 不過集天下之智 以決天下之事爾 人各有智 故愚者亦有一得 苟能悉取衆智 合爲一智 而在我衡鑑 精明得中 則天下雖廣 運之掌上 事機雖煩 決之建瓴矣

생각건대, 천하의 눈을 자신의 눈으로 삼는다면 보지 못할 것이 없고, 천하의 귀를 자신의 귀로 삼는다면 들리지 않는 것이 없으며, 천하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삼는다면 생각하지 못할 지혜가 없을 것이니, 이것이 성스러운 황제나 밝은 왕이 천하를 격려하여 분발시키면서도 심력心力을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이에 반대되면, 스스로 성스럽다고 하는 것에 막히고, 자신의 의견만 쓰는 병이 생기고, 자신의 총명만을 자랑하게 되어, 한 세상을 업신여기고 천하의 사람들을 자신만 못하다고 여기게 됩니다. 장막을 사이에 두거나, 담장 안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견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는데, 하물며 천하의 광대함에 있어서 이겠습니까?

蓋以天下之目爲目 則明無不見 以天下之耳爲耳 則聰無不聞 以天下之心爲心 則睿無不思 此聖帝明王所以鼓舞天下 而不勞心力者也 反是者則蔽於自聖 痼於自用 銜其聰明 陵駕一世 視天下之人 舉歸於

莫己若 而惟薄之間 蕭牆之內 見聞尚有所不及 況於天下之廣乎

아, 스스로 성스러운 지혜를 가졌다고 하지 않고, 남에게서 선함을 취하는 것을 힘쓰는 것이 흡사 비천한 것 같지만, 실은 위대한 순임금께서 받들어 행하시던 것입니다. 순임금의 총명함이 어찌 남만 못하여 반드시 “남에게 취하여 선을 했다”라고 하겠습니까? 진실로 도리는 무궁하고, 성인의 마음은 광대하고 공정하고 밝아서, 하나의 선한 말을 들으면 성대하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남과 자신의 간격을 두지 않았으니, 이런 까닭에 천하의 선함을 모아서 자신의 작용으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순임금께서 그 성스러움을 지극히 할 수 있었던 까닭입니다. 하필 스스로 성스럽다고 하고, 스스로의 의견만 사용하여, 순임금보다 높기를 힘쓰되 도리어 어둡고 막힌 길로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嗚呼 不自聖智 務取於人 似乎卑下 而實是大舜之所服行也 以舜之聰明 豈有所不及於人 而必曰取人爲善 何哉 誠以道理無窮 而聖人之心 廣大公明 聞一善言 沛然由之 無間於人己 故集天下之善 爲一己之用 此舜之所以極其聖也 何必自聖自用 務高於舜 而反趨暗塞之徑乎

혹자가 묻기를 “임금이 비록 여러 계책을 모아서 합하더라도, 어진 선비들이 명령에 호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다만 임금이 선을 정성껏 좋아하지 않으실까 걱정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임금께서 선을 정성껏 좋아하신다면, 선비들이 천리도 멀다하지 않고 모여들 것입니다. 어진 이는 그 도를 행하려고 할 것이고, 지혜로운 이는 그 계책을 다하려고 할 것이며, 정직한 이는 그 충성을 바치려고 할 것이고, 용맹한 이는 그 힘을 다하려고 할 것이니, 어찌 선비가 명령에 호응하지 않을까 근심하겠습니까?

或問 人君雖欲集合羣策 而賢士無應命者 則奈何 曰只患人君無好善之誠耳 夫苟好善以誠 則士將輕千里而來 賢者欲行其道 智者欲盡其術 直者思獻其忠 勇者思效其力矣 何憂士之不應命乎

만약에 선을 좋아한다는 ‘이름’만 있고 그 ‘실질’이 없다면, 여러 계책이 이미 모이더라도 그 헤아림이 합당하지 않을 것이며, 난초의 향기를 악취라고 할 것이며, 솟을 가리켜 희다고 할 것이며, ‘막아鎔鏑’(날카로운 명검)를 가리켜 둔하다고 하고, 낡으로 만든 칼을 가리켜 날카롭다 할 것이며, 혹은 옳고 그름, 사특하고 바름에 있어서, 아득하여 취하고 버림이 없을 것입니다. 발언은 조정에 가득하나, 하나도 시행이 되지 않을 것이니, 아주 어두워서 깊은 연못 속에 떨어진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비는 망망하여 돌아갈 것입니다. 그 뒤에 비록 말을 구하거나 선비를 초빙한다 하더라도, 누가 감히 그 명령에 호응하겠습니까? 이것은 모두 임금의 스스로 취하는 것입니다. 득실이 이와 같으니, 전하께서는 굽어 살피시옵소서.

若有好善之名而無其實 羣策旣集 權度失當 指蘭爲臭 指炭爲白 鎔鏑爲鈍 鉛刀爲銛 又或是非邪正 茫無取捨 發言盈庭 一不見施 杳然若墜深井之中 則士將望望而去矣 後雖有求言聘士之時 孰敢有應命者乎 此皆人主所自取也 得失如斯 伏惟殿下垂察焉

5.

신이 살피건대, ‘임금’은 ‘나라’에 의지하고 나라는 ‘백성’에게 의지하는 것이며, ‘임금’은 ‘백성’을 하늘로 삼고 백성은 ‘밥’을 하늘로 삼는 것이라, 백성이 하늘(밥)을 잃으면 국가가 의지할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불변의 원리입니다. ‘왕자王者’의 정치는 오직 ‘백성의 부모’가 되는 것을 마음으로 삼을 뿐입니다. 백

성의 힘을 쓰는 것을 늦추어주고, 백성의 소득을 두텁게 해주어서, 백성들의 하늘인 밥을 넉넉하게 하여, 그 ‘타고난 선한 마음’ (本然之善心, 양심)을 보존하게 할 뿐입니다.

臣按 君依於國 國依於民 王者以民爲天 民以食爲至 民失所天 則國失所依 此不易之理也 王者之政 不過以父母斯民爲心 紓民之力 厚民之產 使所天有裕 得以保其本然之善心而已

임금으로서 이런 정치를 행할 수 없는 것은 ‘많은 욕심’에 단단히 붙들려서 스스로 바로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자신에게 이롭게 하고자 하면, 반드시 남에게는 해로운 법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욕심을 채우고도 백성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간혹 임금 중에는 비록 욕심이 많은 허물은 없다 하더라도, 태만함이 인습이 되어 백성을 구하지 못하는 이가 있으니, 이것은 욕심이 많은 것과는 차이가 있지만, 백성들의 절박한 위험을 풀어주지 못하고 나라의 근본을 손상시켜, 함께 어지럽고 망함에 도달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人君不能行此政者 類錮於多慾 而莫之自度 蓋欲利於己 必害於人 安有充其多慾 而害不及民者乎 間有人君 雖無多慾之累 而因循怠緩 不能振救斯民者 此與多慾有間 而其不解倒懸 剝喪邦本 同歸于亂亡 則一也

아, 부모는 자식을 충심으로 사랑하여 그 즐거워하는 것을 이루어 주고, 그 미워하는 것을 제거해주어 그 극치를 쓰지 않음이 없습니다. 임금이 진실로 ‘백성의 부모’가 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았다면, 한 백성이 자리를 잃어도 모두 나의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여겨서, 미친 듯이 뛰어가서 기운을 다하여 구하려고 할 것입니다. 아이가 우물에 들어가는 것을, 어느 누가 앉아서 보면서 편안하게 담소하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嗚呼 父母之於子 中心愛之 遂其所樂 去其所惡 無所不用其極 人君
誠以父母斯民爲心 則一民之失所 皆我赤子之入井也 將狂奔盡氣而
救之 孰有坐視赤子之入井 而晏然談笑 以爲當然者乎

옛날 성스러운 임금은 그 직책이 ‘백성의 부모’가 되는 것에 있는
줄을 깊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하고 부지런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여, 밥을 먹을 겨를도 없이, 생각 생각이 늘 백성들에게 있
었습니다. 백성의 힘을 아끼기를 살을 बे기 어려운 것처럼 하였
고, 백성의 소득을 이어줄을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찾듯이 하였으
며, 그 폐단을 혁신하기를 급한 병에 약을 복용하듯 하였고, 만드
시 백성들이 지극히 만족하고 즐거운 경지에 도달하게 한 뒤에야
마음에 뿌듯해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골수에 스며들고 사
랑이 폐부에 맺혀서, 임금을 위하여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을 단
엿을 먹는 것보다 더 쉽게 하였으니, 어찌 나라의 기세가 오래도
록 다스려지고 안정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古之聖王 深知厥職在於父母斯民 故憂勤惕慮 不遑暇食 心心念念
惟在斯民 其惜民力 若肌肉之難割 其業民產 若調飢之求哺 其革弊
癘 若急病之服藥 必躋斯民於至足至樂之域 然後乃慊於心 故恩浹骨
髓 愛結肺腑 爲君赴死 易於含飴 國家之勢 安得不長治久安乎

임금이 오직 ‘부모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백성들도 또한 사랑하
고 염려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굶주림이 몸에 절실하면 예의가 모
두 사라져서 그 임금을 보기를 맹수나 원수를 보는 것처럼 여깁
니다. 임금 된 이 또한 쉽게 업신여기면서 “감히 누가 나를 어찌
하겠는가?”라고 생각하니, 재앙의 배태가 어두운 중에 잠복해 있
음에도 이를 경계할 줄 모르다가, 하루아침에 뜻밖의 변고가 홀연
히 생겨서, 필부필부匹夫匹婦가 모두 막강한 적수가 된 뒤에, 비

록 후회하고자 하여도 이미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백성의 힘이 쉬지 못하거나 백성의 소득이 불어나지 않으면, 비록 병사가 진秦나라와 같이 강하고, 재물이 수隋나라와 같이 부유하더라도, 뿌리가 뽑힌 나무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비록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하더라도 그것이 말라죽는 것은 서서 기다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하물며 수나라와 진나라만큼 부강하지도 못하다면 오죽하겠습니까?

人君惟無父母之心 故小民亦無愛戴之念 飢寒切身 禮義都喪 其視君上 如豺虎寇讐 而爲君者 方且易而侮之 以爲莫敢誰何 禍胎伏於冥冥之中 而不知爲戒 一朝變起慮外 患生所忽 匹夫匹婦 皆爲勍敵 然後雖欲悔之 已無及矣 夫民力不休 民產不殖 則雖兵強如秦 財富如隋 無異於撥本之樹 枝葉雖茂 其枯可立而待也 況富強不及隋秦者乎

이러므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며, 백성을 편안하게 하는 것은 자신을 편안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저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고 이르는 것은, 백성들의 이로운 것을 일으켜주고 해로운 것을 제거해서, 그 삶을 즐겁게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만약 고루한 것을 따르고 그릇된 것을 지키며, 안일하게 세월을 보내고, 한 가지 폐단도 혁신하지 못하며, 하나의 정책도 거행하지 못하면서, 다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고 아침저녁으로 호령하면서 “나는 백성을 편안하게 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백성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지극히 어리석은 것 같으나 지극히 신령하니 어찌 혀끝으로 속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백성들이 편안하지 못한 것은 전하께서도 아시는 바이니, 알고도 구제하지 않으신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은혜를 내려서 그들이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하십시오.

是故 愛民所以自愛也 安民所以自安也 夫所謂安民者 爲之興利除害 使樂其生之謂也 若因陋守訛 荏苒姑息 一弊未革 一政不舉 而徒諄諄然朝號暮令曰 我欲安民云爾 則是非誠心愛民也 斯民也至愚而神 豈得以口舌相欺乎 今者斯民之失寧 殿下之所知 知而不救 則民怨益甚 伏惟殿下惠鮮焉

6.

신이 살피건대, 하늘이 이 백성을 낳을 때에, ‘사목司牧’을 세웠습니다. 사목은 실로 ‘임금’(君)과 ‘스승’(師)을 겸하였으니, ‘목자’로서 백성을 기르고, ‘임금’으로서 백성을 다스리고, ‘스승’으로서 백성을 가르쳤습니다. 그런 뒤에야 백성들이 그 삶을 안락하게 여겼고, 그 악을 고쳤고 선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삼대三代(하夏·은殷·주周) 이전에는 3가지가 각각 그 도리를 지극히 하였으므로, 정치가 이루어지고 교화가 행해졌으며, 통치가 융성하였고 풍속이 아름다웠습니다.

臣按 天生斯民 立之司牧 司牧實兼君師 牧以養之 君以治之 師以教之 然後斯民得以安其生 革其惡 興其善焉 三代以前 三者各盡其道 故政成化行 治隆俗美

그런데 후세에 내려오면서 ‘도학道學’이 행해지지 아니하여, 임금은 몸소 실천하는 실질이 없고, 모범을 보여서 사방을 바로잡지 못하여, 다만 ‘법령’으로 한 세상을 유지시킬 뿐입니다. 간혹 인자한 임금이 있어서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였으나, 그 가르침에 있어서는 들어볼만한 것이 없었으니, 어찌 ‘인간의 도리’가 질서를 잃고, 풍속이 퇴폐해진 것을 괴이하게 여기겠습니까?

降及後世 道學不行 人君自無躬行之實 無以表正四方 只以法令把持一世 間有慈仁之主 或致斯民之富庶 而教則蔑聞 何怪乎彝倫失敘

風俗頹敗乎

옛 도(인간의 길)가 시행되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귀로 듣던 것들을 편안하게 여기고, 눈으로 보던 것들을 익숙하게 여겨서, 모두들 당연하다고 여기면서 도리어 옛 도를 매우 놀랄만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뜻있는 선비들이 분개하고 한탄함을 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저 옛 도라고 이르는 것은, 산을 겨드랑이에 끼고 바다를 뛰어 넘는 것이나, 허공을 능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부모와 자식사이에는 ‘사랑’(仁)을 지극히 하고, 임금과 신하사이에는 ‘정의’(義)를 지극히 하고, 부부사이에는 ‘구별’(別)을 지극히 하고, 어른과 어린이사이에는 ‘예절’(禮)을 지극히 하고, 친구사이에는 ‘성실’(信)을 지극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천성’(타고난 본성)에 뿌리가 있어서 ‘아름다운 덕’으로 발현된 것이니, 본래 행하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古道之不行 厥惟久矣 常人耳恬目習 皆以爲當然 反以古道 爲可駭可愕之事 志士所以憤惋不已者也 夫所謂古道者 非若挾山超海 陵空駕虛之謂也 只是父子盡其仁 君臣盡其義 夫婦盡其別 長幼盡其禮 朋友盡其信之謂也 此皆根於天性 發爲懿德 本非難行者也

오직 앞에서 그 ‘기품氣稟’의 구속을 받고, 뒤에서 ‘물욕物欲’에 빠지게 되고, 거기에 생업이 향상되지 않음이 더해져서, 점차 그 자리를 잃고 죽음을 구제하기에 넉넉하지 않자 ‘양심’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단지 형벌의 무서움만을 알 뿐, 명예와 절개를 지키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아서, 사특함을 더하고 거짓을 키워서 교묘하게 범망만을 피하려 합니다.

惟其氣稟拘於前 物欲汨於後 加之以產業無恒 展轉失所 救死不贍

喪其良心 徒知刑辟之可畏 不恤名節之可守 增邪長僞 巧避法網

이에 윗사람들은 교화에 도리가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다만 형법의 치밀하지 못함을 걱정하여 조목들을 추가하여 그 속임을 막고자 하니, 법이 치밀해질수록 간악함은 더욱 불어나서, 풍속은 날로 무너지고 세상의 도리는 날로 땅에 떨어져서 구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간혹 분개하여 세상의 습속을 바로잡고자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가르침에는 근원이 있고 교화에는 단계가 있음을 모르고, 다만 그 이름만을 사모하여 근본을 뒤로 하고 말단을 먼저 하니, 가르침이 있더라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於是 上之人 不思教化之有道 但憂刑法之不密 添科益條 以防其欺 法愈密而姦益滋 風俗日壞 世道日卑 而不可救矣 或有慨然思矯世習者 又不知設教有因 化民有漸 徒慕其名 未得其實 後本先末 有教無效

이에 세상 사람들 중에서 방자하기를 즐기고 단속하기를 꺼리는 이들은 틈을 타서 힘써 공격하여, 옛 도는 진실로 다시 복원할 수 없다고 여기니, 이것이 어찌 한 잔의 물을 가지고 한 수레의 불을 끄려는 것과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임금께서 먼저 몸소 실천하기를 힘쓰고, 어진 이를 얻어 같이 다스려서, 조정의 명령이 인심으로 하여금 기뻐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끝이 없고 의탁할 곳이 없는 백성으로 하여금 모두 일어서고자 하는 생각을 품게 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그들의 폐단을 제거하고 고통을 풀어주면서, 논밭과 동네를 제정하여 그 삶을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를 설립하여 교육하여 ‘인간의 길’을 가르쳐주며, 예절을 제정하여 그 절도를 단속해주고, 향사례 鄉射禮와 향음주례 鄉飲酒禮의 의례를 만들어서 화합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선을 포상하여 권장함으로서 나아갈 곳을 결단하게 하고,

악을 엄벌하여 징계함으로서 그릇된 것을 결단하게 하면, 장차 학교로 하여금 교육의 성대함을 이루게 할 것이며, 고을로 하여금 공경하고 양보하는 풍속을 일으킬 것이니, 시대가 큰 도리를 따르게 되어 형벌을 사용하지 않고 예절(질서)과 음악(화합)이 성대해질 것입니다. 어찌하여 옛 도를 진실로 오늘날에 실행할 수 없겠습니까?

於是 世人之樂縱恣憚繩檢者 乘隙而力攻之 以爲古道眞不可復 此何異於以一杯水 救一車薪之火 而以爲水不勝火也哉 必也人君 先務躬行 得賢共治 朝廷命令 悅服人心 使顛連無告之民 咸懷興起之念 然後祛其弊癘 以解其苦 制其田里 以遂其生 設學而教之 以指其路 制禮而束之 以檢其節 爲鄉射鄉飲酒之儀 以導其和 旌善以勸 而使決所趨 瘴惡以懲 而使決所背 則將使學校致教育之盛 鄉黨興敬讓之風 時升大猷 刑錯不用 禮樂濟濟矣 古道豈眞不可行於今日乎

혹자가 묻기를 “그렇다면, 만약 반드시 임금이 몸소 실천하여, 백성을 먼저 부유하게 한 뒤에 교육을 베풀 수 있다면, 임금이 몸소 실천하는 날이 없고, 백성이 부유해질 기약이 없으면, 끝내 가르침을 베풀 날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하여, 신이 대답하기를 “임금이 진실로 몸소 실천하지 않고, 백성을 기르는 것에 힘쓰지 않는다면, 이는 앞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것이니, 구제할 방법이 없는 것이다. 도대체 어떻게 옛 가르침을 베풀 수 있겠는가? 또한 반드시 임금의 덕이 성대해지고 백성이 부유해진 뒤에, 비로소 가르침을 베풀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또한 한 가지에 집착한 주장이다. 오직 임금이 몸소 실천할 뜻을 세우고, ‘사랑의 정책’(仁政)을 베풀면서, 단계적으로 교육을 베푼다면, 기르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병행하여 서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을 교화하는 길’(化民之道)는 그 요령이 이와 같으니, 앞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힘쓰십시오.

或問 此則然矣 若必待人君躬行 先致富庶 然後乃可設教 則躬行無日 富庶無期 無乃終無設教之日乎 答曰 人君苟不知躬行 不務養民 則是坐而待亡 無策可救矣 尚何古教之可設乎 若又必待人君成德 斯民富庶 然後乃欲設教 則此亦執一之論也 惟是人君 方立躬行之志 方發施仁之政 而漸次設教 則養與教 可以並行而相成矣 化民之道 其要如此 伏惟殿下勉勵焉

7.

신이 가만히 따져보니, 태초의 백성들은 풍속이 처음 열림에, 보금자리에 살면서 날고기를 먹으며 살아서, 생활의 도리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니다. 머리를 풀어헤치고 발가벗고 살았으며, ‘인간의 문화’(人文)가 갖추어지지 않아서, 모여 살되 임금 없이 없었습니다. 이빨로 물고 손톱으로 핏대를 찌워서, 크게 순박했던 삶은 이미 깨지게 되어 장차 큰 난리가 발생하려 했습니다.

竊謂 厥初生民 風氣肇開 巢居血食 生理未具 被髮裸身 人文未備 羣居無主 齒齧爪攫 大朴既散 將生大亂

이에 성인이 있어 만물의 으뜸이 되어 나와서, 총명과 지혜로써 그 ‘본성’(인의예지의 본성)을 온전하게 하니, 역조의 백성들이 자연히 그를 향해 귀의하였습니다. 분쟁이 있으면 해결해 주기를 구하고, 의심이 있으면 가르쳐주기를 구하여, 받들어 임금으로 삼았습니다. ‘민심民心’이 향하는 곳이 바로 ‘천명天命’이 돌아보는 곳입니다. 성인은 스스로 역조의 백성이 귀의함을 알고 ‘임금과 스승’(君師)의 직책을 자신의 책임으로 맡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천시天時’에 순응하고 ‘지리地理’로 말미암아, 백성을 길러 주는 도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자연을 관찰하여 양생의 도구를 제작함)

於是 有聖人者首出庶物 聰明睿智 克全厥性 億兆之衆 自然歸向 有爭則求決 有疑則求教 奉以爲主 民心所向 卽天命所眷也 是聖人者自知爲億兆所歸 不得不以君師之責爲己任 故順天時 因地理 制爲生養之具

* 유소씨有巢氏는 새집을 보고 집과 건물을 만듦, 수인씨燧人氏는 불을 발견하여 음식을 익혀 먹게 함, 복희씨伏羲氏는 그물을 발명하여 수렵을 도움, 신농씨는 농기구나 쟁기를 발명하여 농경을 도움, 의약을 계발하고, 시장을 개설함, 황제는 달력이나 문자 발명.

이에 궁실과 의복과 음식과 기용器用이 점차 갖추어져서, 백성들이 필요한 것을 얻게 되고, 삶을 즐기고 그 생업에 편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안락하게 지내면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짐승에 가까워짐을 염려하여, ‘사람의 마음’(人心)에 순응하고 ‘하늘의 원리’(天理)에 뿌리를 두어 교화敎化의 도구를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부자父子·군신君臣·부부夫婦·장유長幼·붕우朋友가 각각 그 도리를 얻게 되었으니, ‘하늘의 질서’가 훤히 드러나고 또한 시행되었습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

於是 宮室衣服 飲食器用 以次漸備 民得所需 樂生安業 而又慮逸居無教 近於禽獸 故因人心 本天理 制爲敎化之具 於是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 各得其道 天敘天秩 旣明且行

또한 시대와 세대가 같지 않음을 염려하여 제도를 합당하게 하고, 현명함과 어리석음이 한결같지 않음을 염려하여 바로잡아 다스림에 방법을 강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인정人情을 절제하고 시무時務를 바로잡음에, 더하고 줄이는 규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문채남과 질박함, 정책과 명령, 포상과 형벌이 각각 합당하게 되었

는데, 그 과한 것은 억누르고 그 모자란 것은 끌어당겨서, 선을 일으키고 악을 징계하여 다스려, 마침내 ‘대동大同’으로 돌아오게 하였습니다.

而又慮時世不同 制度有宜 賢愚不一 矯治有方 故節人情度時務 制爲損益之規 於是 文質政令 爵賞刑罰 各得其當 抑其過 引其不及 善者興起 惡者懲治 終歸於大同

성인이 하늘을 계승하여 표준(황극皇極)을 세워서 일세를 다스리는 것이 이와 같음에 불과하니, ‘도통道統’(도학의 계통)이란 이름이 여기서 확립되었습니다. 성인이 능히 군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 ‘도덕道德’이 한 세상을 복종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지, 세력을 빌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세상을 떠나면, 반드시 성인이 나와서 대신하여 천하에 임하여, 때에 따라 변화하고 통하여 백성으로 하여금 궁핍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위 ‘사람의 마음’(人心)에 순응하고 ‘하늘의 원리’(天理)에 뿌리를 둔다는 것은 일찍이 조금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불변하는 것은 ‘천지의 불변하는 도리’(天地之常經, 양심의 도리, 도道)이며, 변화하고 통하는 것은 ‘고금의 공통된 의론’(古今之通誼, 양심의 실천, 덕德)입니다. 풍속이 옛날과 같지 않고 성인이 드물게 나와서, 성인으로 성인을 이을 수가 없어서 위대한 도통이 정해지지 않자, 도리어 간웅姦雄들이 일어나 엿보고 탐나게 되었습니다.

聖人之繼天立極 陶甄一世 不過如此 而道統之名 於是乎立 聖人之能爲大君者 以其道德能服一世故也 非有勢力之可借 故聖人旣沒 則必有聖人者代莅天下 隨時變通 使民不窮 而其所謂因人心本天理者 則未嘗少變 不變者 天地之常經也 變通者 古今之通誼也 時世漸降 風氣不古 聖人罕作 不能以聖傳聖 則大統未定 反起姦雄之窺覬

그러므로 성인이 이것을 걱정하여 아들에게 전하는 법을 세웠는데, 아들에게 전한 뒤로는 ‘도통’이 반드시 군주에게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아래에 있는 성현聖賢이 과한 것을 억제하고 부족한 것을 보필하는 도로 도와준 뒤에야, 사도斯道の 전승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삼대三代(하은주) 이상에서 임금이 성스러움을 다하지 않더라도, 천하가 다스려지고 화평했던 이유입니다.

故聖人有憂之 乃立傳子之法 傳子之後 道統不必在於大君 而必得在下之賢聖 贊裁成輔相之道 以不失斯道之傳焉 此三代以上所以人君不必盡聖 而天下治平者也

시대와 세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풍속이 어지러워지고 백성들의 거짓이 날로 불어나서 교화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습니다. 임금은 이미 스스로 닦는 덕이 없었고, 또한 현인의 정성스러움을 좋아하지 않아서, 천하를 자기의 오락거리로 삼고 천하를 걱정하지 않았으며, 사람을 ‘덕德’으로 쓰지 않았고, 세상을 ‘도道’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래에 있는 성현은 스스로 조정에 설 수가 없게 되어, 그 덕을 깊이 감추고 팔지 않았으며, 보물을 간직한 채 일생을 마쳤습니다. ‘정의’(義)를 버리고 ‘이익’(利)을 추구하는 자들은 서로 배척하고 경쟁하며 위와 아래가 서로 이익을 쟁취하여, 도통의 전승이 비로소 민간의 필부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時世益下 風氣淆漓 民僞日滋 教化難成 而人君既無自修之德 又乏好賢之誠 以天下自娛 不以天下爲憂 用人不以德 治世不以道 於是在下之賢聖 不能自立於朝 深藏不售 蘊寶終身 而棄義趨利者 相排競進 上下交征 道統之傳 始歸於閭巷之匹夫

도통이 ‘임금과 재상’(君相)에게 있지 않는 것은 진실로 천하의 불

행이었습니다. 이후로는 교화가 무너지고 풍속이 퇴폐해졌으며, 더하여 이단異端이 횡행하고 권모술수와 사기가 성대하게 일어나서, 나날이 어두워지고 다달이 캄캄해지며 고질병이 깊어졌습니다. ‘삼강三綱’이 몰락하고 ‘구법九法’(홍범구주)이 망하자, 도통道統의 전승이 민간에서도 끊어지게 되어, 천지의 깊은 밤이 이에 극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임금 중에 간혹 재능과 지혜로써 ‘조금의 안정’(小康)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대개 이익을 추구하는 ‘공리功利’의 설에 빠져서 ‘도덕道德’의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비유컨대, 깊은 밤의 어둠에 반짝이는 불빛과 같았으니, 어찌 우주를 떠받치고 해와 달을 흰히 밝혀, 도통의 전승을 책임질 수 있었겠습니까?

道統之不在君相 誠天下之不幸也 自此以降 教化陵夷 風俗頹敗 加之以異端橫騖 權詐熾興 日晦月盲 展轉沈痼 三綱淪 而九法斁 以至於道統之傳 亦絕於閭巷 則乾坤長夜 於此極矣 間有人君 或以才智能致少康 而類陷於功利之說 不能尋道德之緒 譬如長夜之暗 爝火之明爾 安能撐拄宇宙 昭洗日月 以任傳道之責乎

아, 도는 고원한 것이 아니요, 단지 일상생활의 사이에 있을 뿐입니다. 일상생활의 사이, 움직이고 고요한 즈음에, 사물의 원리를 정밀히 관찰하여(4단의 분석) 진실로 그 ‘중심’(中, 치우침과 모자람이 없는 균형점, 인의예지의 천리에 부합하는 자명한 답)을 얻으면, 이것이 바로 도에서 떠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으로 덕을 이룬 것을 ‘자신을 닦음’(修己, 명명덕明明德)이라 하고, 이것으로 가르침을 베푸는 것을 ‘남을 다스림’(治人, 신민新民)이라 하며, 수기·치인의 실질을 지극히 하는 것을 ‘도통의 전승’(傳道, 지어지선至於至善)이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양지·양능을 확충하여 인의예지의 천리를 온전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이가, 도통의 전승자이며 천리의 화신이다!) 그러므로 도통이 ‘임금과 재상’(君相)에게

있으면, 도가 한 시대에 행해져서 그 은택이 후세에까지 흐르게 되나, 도통이 필부에게 있으면 도가 한 세대에 행해지지 않아서 단지 후학들에게 전해질 뿐입니다. 만약 도통의 전승되지 않고, 필부마저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천하가 어리석어져서 따라야 할 길을 알 수 없게 될 것입니다.

嗚呼 道非高遠 只在日用之間 日用之間 動靜之際 精察事理 允得其中 斯乃不離之法也 以此成德 謂之修己 以此設教 謂之治人 盡修己 治人之實者 謂之傳道 是故 道統在於君相 則道行於一時 澤流於後世 道統在於匹夫 則道不能行於一世 而只傳於後學 若道統失傳 竝與匹夫而不作 則天下貿貿 不知所從矣

엿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도’에 뜻을 두어 게을리 하지 마시고, ‘요순堯舜’을 본받고 따르십시오. ‘학學’으로 선함을 밝히시고 ‘덕德’으로 몸을 정성스럽게 하시어, ‘수기修己’의 공부를 극진히 하시고, ‘치인治人’의 가르침을 베푸십시오. 겁을 내어 물러서려는 생각에 흔들리지 마시고, ‘이해利害’에 관한 설에 움직이지 마시고, 묵은 관습을 따르자는 논의에 구속받지 마시고, 반드시 ‘사도斯道(유학)’를 크게 밝히고 크게 행하시어, 도통의 전승을 접하신다면 만세토록 매우 다행일 것입니다.

伏望殿下 志道不懈 追法堯舜 學以明善 德以誠身 盡修己之功 設治人之教 毋爲退怯之念所撓 毋爲利害之說所動 毋爲因循之論所拘 必使斯道大明而大行 以接道統之傳 萬世幸甚

* 정제두鄭齊斗(1649~1736), 『하곡집霞谷集』 「존언存言 하下」
우리 동방은, 중국의 근본과는 같지 않아서, 스스로 성인에서 성인으로 서로 계승하여 왔다.

我東 非如中國之本 自聖聖相承也